

어등산 테마파크 ‘썰수표’ 되나

기부토지 법률 검토만 6개월... 썰시장 임기내 착공 불투명 나머지 일정도 썰썰산중... 골프장만 우선 개장 비난 고조

광주시가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어등산골프장 우선 개장’을 허락한 대신, ‘시민의 휴식처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어등산 유원지(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각종 행정절차 등에 막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어등산 리조트는 지난달 19일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안에 따라 골프장을 우선 개장하는 조건으로, 어등산관광단지 전체 부지 273만㎡ 가운데 경관녹지 및 유원지 부지 117만6000㎡를 광주시에 기부하고 골프장 27홀 중 대중제 9홀의 운영수익은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재단을 설립해 기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주)어등산리조트측이 오는 2015년까지 완공해 기부하기로 했던 테마파크 등 유원지를 직접 개발하게됐지만, 현재로서는 기한 내 완공은커녕 강운태 광주시장의 임기 내 착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우선 광주시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안이 내려진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기부 토지를 시에서 직접 받을지, 시와 ‘어등산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협약’을 맺은 광주도시공사가 받을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가 해당 부지를 기부 받으면 사업시행자인 만큼 개발에 관련된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방공기업은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함에 따라 300여억원대로 추정되는 기부 토지의 증여세(30%) 90억원을 국가에 내야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치단체인 광주시의 경우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직접 사업을 할수 없는 만큼 광주도시공사와 해당 부지에 대한 재계약 및 위탁·관리의뢰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를 진행하는데만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결국 행정안전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광주시는 또 법원의 결정에 따른 ‘무(無)조건 기부’사례는 처음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기부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데만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부의 첫 단계를 진행하는데만 반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나머지 일정도 썰썰산중이다. 시는 이번 주 내로 가칭 ‘어등산 개발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을 위한 공익시설 ▲광주시의 발전방향과 연계한 개발 ▲시 재정 부담 최소화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개발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개발용역을 발주하고,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상수도본부, 한전 등 수십여 개의 관련 기관과 개발 관련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상하수도과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마친 뒤 일부 토지를 기업 등에 분양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게 광주시의 계획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내장산 단풍 내주까지 절정 광주일보와 (주)밀레가 공동 주최한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하는 한국명산 16좌 산행’에 참가한 여성 등산객들이 내장산 국립공원을 찾아 붉게 물든 단풍을 만끽하고 있다.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달 초순까지 절정에 이른 단풍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기사 10면

/정음=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 지원 호남은 ‘왕따’

정부 5523억원중 94% 충청권 투입... 전남·북 331억만 배정

새누리 주영순의원 지적

지난 2007년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 오염사고와 관련한 정부 지원에서도 호남은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태안 유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주영순 국회의원은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오염 사고로 총남 6곳 뿐만 아니라 신안, 영광, 무안 등 전남지역 3곳과 군산, 부안 등 전북지역 2곳이 특별법상 피해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호남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상 초유의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정부는 1차 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중심의 26개 사업에 대해 총 5523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충남지역

6개 시·군에 집중됐고 전남 3곳에는 전체의 6%인 330억원, 전북에는 1억원만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비(非) SOC를 중심으로 총 27개 사업에 322억이 투입된 2차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도 전남의 피해지역 3곳에는 지금까지 단 한푼의 예산도 투입되지 않고 있다.

주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도 태안 유류피해 관련 1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200억원이 편성돼 있지만 전북에는 단 1원도 편성되지 않았고, 2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는 전남의 예산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해안 유류피해 지원에서조차 소외된다면 호남의 피해 주민은 삼성으로부터 죽고, 정부로부터 한 번 더 죽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정부는 지역별 피해액 조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합리적 지원을 위해서는 시·군별 피해 규모 파악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 의원은 “지역별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 후 합리적인 기준 아래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광주·전남 시민단체 투표시간 연장 법개정 국회 청원

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라”며 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971년 선거법상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해진 이후 국민 생활 변화에도 투표시간 규정이 달라지지 않아 투표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등 고용

안정성 취약층의 유권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해 이들의 투표권이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2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광주·전남 시민행동’은 현재 1만여 명이 서명해 동참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원서접수: 11. 12(월)~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원서접수: 11. 12(월)~30(금)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예향남도 100만 편지쓰기

2012. 10.22(월) ~ 11.10(토) (3주간)

참여대상 광주·전남 시도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
주최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등

참여방법 편지봉투 상단에 사랑의 하트(♡)를 표시하고 우표를 붙여 발송
단체참여는 사전에 가까운 우체국에 참가신청을 하고 희망일자(기간)에 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여 발송

시상 개인 100명을 선정하여 나만의 우표증정
학교 지식경제부장관상 2개교, 교육감상 12개교(광주6, 전남6)표창
단체 우정사업본부장, 전남지방 우정청 감사패 증정

문의 가까운 우체국 또는 전남지방우정청 편지쓰기 담당
☎062-600-4636~7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jn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편지를 보내세요.
If you really want to touch someone, send them a letter

출처: Australia Post